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도합 12년이나 되는 초중학교 시절은 대체로 지겹고 칙칙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즐거운 시간이나 중요한 배움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 경우가 장 기억에 남는 행복한 학교생활은 고2 때 찾아왔다. 돌아보면 신기한 일이었다. 고2는 보통 코앞에 닥친 입시의 압박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공부 이야기는 오늘의 본론이 아니지만 이때 나는 성적도 일생의 바닥을 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자면 일생 가장 우울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가장 행복했다.

나만 행복했던 게 아니었다. 그때 우리 반은 전교에서 가장 사이가 좋은 반으로 소문이 났다. 입시를 앞두고 까칠해진 사춘기 소녀들 60명을 모아 놓았는데 믿을 수 없이 다정하고 화목했다. 그때 우리가 행복했던 것이 대체 어떤 모습이었나고 말하면 딱 꼬집어 말할 만한 일이 없다. 그냥 우리는 학교에서 마음이 편안했고 각자의 문제들을 잊은 채 수다를 떨며 하루를 보냈다. 가장 기억나는 남다른 풍경은 우리의 점심시간이었다. 점심시간에는 수업 시간 동안 헤어져 있던 절친들

그 드라마의 주인공

이 다시 뭉치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도시락을 들고 다른 반으로 뛰어가는 일도 흔했다. '인싸'(인사이드)들은 커다란 그룹을 이루고 시끌벅적하게, '아싸'(아웃사이드)들은 혼자 혹은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던 우리 교실에서는 그런 소란스러운 재배치가 일어나지 않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앉은 자리 그대로 네다섯 명씩 짝지어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 몇 주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꾸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새로 만난 이웃 들끼리 새로 그룹을 이루어 종알거리며 밥을 먹었다.

곧 절친을 찾아 다른 반에서 달려오는 아이들이 없어졌다. 그들은 자기 절친이 낯선 아이들과 만족스럽게 밥을 먹는 모습에 놀랐고 절친들의 배타성이 없는 그 그룹에 굳이 끼여들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각자의 교실로 돌아갔던 것은 우리가 만든 희귀한 행복에 대한 존경의 의미였을 것이다. 우리 60명은 1년 동안 절친도 왕따도 없이 오뎀했다. 그것은 분명 흔치 않은 일이었다. 우리는 모두 우리 반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 아름다운 시간에 보이지 않는 연출자가 있었음을 깨달은 것은 어른이 되고 난 뒤, 관찰자의 시선으로 교실을 다시 보게 된 이후였다. 그 탁월한 연출자는 우리 담임선생님이었다. 20대 후반의 미혼 선생님이었던 그는 아주 집착한 성격이었고 말수가 적었다. 사이 좋게 지내라고 강조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나를 부르시더

나 어제 학급 청소 시간에 무엇을 했냐고 물으셨다. 나는 약간 죄책감을 느끼며 학생회 회의에 다녀왔다고 대답했다. 어쩌면 야단을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알았다. 다음부터는 청소 시간에 회의하지 마."

거우 그걸뿐이었다. 나는 이후로 청소를 땀땀이치고 학생회 회의에 가는 알미운 행동을 다시 하지 않았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 또는 어른의 일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분이 그런 식으로 많은 일들을 보이지 않게 바로잡으셨으므로 우리는 누구나 사이 좋게 1년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그 일을 당신의 공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우리 반 아이들이 참 착해서요." 그때 우리 반이었던 아이들 중에 유명인이 되거나 대부호가 된 사람은 드물겠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을 살았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야만과 폭력의 일들로 한참 동안 세상이 들썩었다.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더 추하고 파렴치한 일들을 뉴스로 접해야 했다. 아이들이 저지른 일이었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연출자가 있었다. 어른의 삶이 아이들의 삶을 연출하게 된다는 것은 놀라고도 두려운 일이다. 나의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이 싸우지 않는 행복한 1년을 연출했고 뉴스 속의 부모들은 법과 권력을 총동원한 '학폭' 드라마를 연출했다. 내가 연출한 폭력 드라마의 주인공이 내 자식이 되어 불행과 불명예까지 모두 그 아이의 목에 걸게 될 줄을, 그들은 알았을까.

종교칼럼

후회하지 않는 삶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 사회복지회 부국장

코로나19가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하다.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면, 우리는 불편을 감수했고 서로를 위해 배려했으며 일상의 삶에서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것에 감사했다.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코로나 19 이전의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던 경험이나 삶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삶을 통해 얻었던 그 결과는 우리가 습관화되고 적응했던 일상을 고통과 슬픔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 후회하지 않고 싶은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순 시기는 40일 동안 주님의 고통과 수난에 동참하여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悔改)의 기간이다. 인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려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각 성당에서는 신자들을 위한 '피정'을 준비한다. 피정은 '피세정념'(避世精念)의 줄임말로 '세상으로부

터 물러나서 자신을 돌아보고 고요함을 얻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20여 년 전, 성당 청년들과 함께 피정을 가졌던 기억이 떠오른다. 청년들과 함께 피정 중에 체험으로 관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다. 자신의 죽음과 장례를 체험하는 것으로, 지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알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준비했었다. 성당 근처 장례식장에서 관을 하나 빌렸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도와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준비된 관 앞에 작은 상을 두고, 그 위에 초와 향을 준비했다.

필자를 선두로 피정에 참석했던 모든 청년들이 관 체험을 시작했다. 관에 들어가면, 관 뚜껑을 닫고 그 위로 탁탁 치는 못 박는 시늉을 하며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불까지 켜다. 관에 들어간 지 몇 초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던 청년들 모두 슬프게 우는 것이었다. 두려움과 떨림, 생명의 끝이라는 고통이 다가온 것인지 모두 슬프게 울었고, 어떤 이는 큰 소리로 서럽게 울기까지 했다.

관 안에서의 죽음 체험 후, 청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관 안에서 무엇이 느껴졌는지,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는지, 그리고 관 밖으로 나온 지금 어떤 마음인지 등의 질문과 함께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과거의 모든 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고 하고, 부모와 가족들이 떠올라 힘들었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 주지 못한 것들이 많아 후회했다 하고,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고 욕심부리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등 체험을 나누었다. 그리고 청년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기억이 떠오른다.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이 피정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필자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자주 스스로 묻게 된다.

소유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 통제하려 하고, 비교하여 소중한 자신을 착취하고, 고통 없는 영광을 바라며 시기와 질투로 초라해지고, 쓸데없는 관심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 심판관이 되고, 재난을 피했다고 생각하여 나만 아니면 된다는 안도의 숨과 함께 이기적인 교만 덩어리가 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내 삶이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태오 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는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라."고 말씀하신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는 남이 나를 먼저 헤아려 주고, 이해해 주고, 받아들여 주고, 편들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서로 싸우며, 더 만나려 하지 않고, 서로 험담하게 된다. 한 번이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온전히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편들어 주었던 적이 있는가? 만일에 있다면, 진정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社說

‘균형 발전’ 위한 한전공대까지 감사로 흔드나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교 2년 째를 맞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우수 인력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보수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를 이유로 적법성을 따져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그제부터 서울간 전남도를 대상으로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에 대한 현장 감사를 개시했다. 감사원은 전남도뿐 아니라 오는 31일까지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대학 부지 확보 및 설립 과정의 투명성,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 의혹, 부영CC 잔여 부지의 개발 이익 환수 방안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지역민의 희망이자 인재 양성 요람인 한전공대 흔들거릴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17년 문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출범한 한전공대는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첫 신입생이 입학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캠퍼스 신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광주과학기술원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연구개발 기반 구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한때 이마중흥 시기에 대학 설립의 적법성을 가려 보겠다는 것은 전 정부 정책 시수기의 의도가 담긴 '정치 감사'가 아닌 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탄생한 한전공대는 단순히 '한전 적자'라는 프레임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한전공대는 나주 혁신도시의 한전 본사와 연계해 세계 에너지산업의 메카를 구축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 없는 감사로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유치, 광주·전남 전략적 협력을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추진에 발맞춰 광주시와 전남도가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지역 특화 산업에 부합하고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기관들이 주요 대상이다.

광주시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문화관광연구원 등 35개를 유치 대상에 올렸다. 인공지능(AI) 집적단지, 국립 아시안문화재단 등 지역 특화산업 기반을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농수산업 및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기관이 최우선 목표다. 농업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수협은행, 지역농공사, 환경공단, 여촌어항공단 등 50여 개를 선정했다.

유치 활동도 구체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수도권 핵심 공공기관 유치 의지를 다졌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농·수협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에 두도록 한 농·수협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하는 등 정치권·

농수산 단체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도 어제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가 공공기관 유치 시론 전략 회의'를 열어 유치 원칙과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정 시장은 한전과 연계하고,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키우며,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이전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자칫 시도 간 경쟁이 우려됐던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이 협력해 전남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유일하게 인접 지역인 나주에 공동 혁신도시를 조성,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기관을 유치해 미래 성장 거점을 마련했다. 이는 상생 발전을 염원하는 양 지역 사회의 합의와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에도 소모적 경쟁보다는 전략적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정부도 이전 기관 선정 및 배치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독일 축구화 발에 맞을까' 2014년 신문 스포츠면의 제목이다. 한국 축구 새 사령탑에 독일 출신 슈틸리케 감독이 선임되자, 독일식 축구가 한국에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은 제목이었다. 슈틸리케는 취임 초반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중국 창사에서 열린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0-1로 전 '창사 참사' 이후 퇴출됐다. 무엇보다 전략 부재와 패배의 원인을 선수 탓으로 돌리는 발언으로 신뢰를 잃었다.

그제 취임한 클린스만 감독은 한국 축구의 역대 아홉 번째 외국인 감독이자 슈틸리케에 이어 두 번째 독일 출신 감독이다. 선수 시절 세계 축구사에 길이 남을 활약으로 언론의 평가는 일단 호의적이지만 전문가와 팬들의 여론은 그리 좋지 않다. 지금까지 나타난 클린스만 축구는 볼 소유와 패턴 플레이 그리고 공간을 넓게 쓰며 공격적으로 전방을 압박하는 현대 축구의 트렌드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전술적인 부분에서 불안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며, 국내 리그의 유망주를 발굴하고 키우는 데 소홀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외국인 감독이 선임될 때마다 부정적인 평가는 항상 있어 왔다. 번두는 포르투갈 감독 때 선수들과의 불화가 악재였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히딩크에게는 레알 마드리드 등의 팀에서 잇따라 경질됐던 전력이 부각되기도 했다. 클린스만은 아시안컵 우승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24일 울산에서 열리는 콜롬비아와 평가전을 통해 한국 감독 데뷔전을 치른 뒤, 28일엔 서울에서 우루과이와 평가전에 나선다. 다행히 헤이초코 코치의 합류로 전술 부분은 크게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 축구는 대표팀 감독부터 기술위원장까지 모두 독일인이다. 독일은 지난 두 번의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월드컵에서 4회 우승을 달성한 최고의 축구 강국이다. 그래서 영국의 전설 리네커는 "축구는 22명이 90분간 공을 쫓아 달리다가 결국엔 독일이 이기는 스포츠다"라고 했다. 클린스만의 축구화는 한국 선수들의 발에 맞을까? 이번 달 두 차례 평가전에서 클린스만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재만 편집담당기국장 jkyou@

기고

광주전남연구원, 비전과 결단이 필요하다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

지역 발전 방안을 일선에서 연구하며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는 광주전남연구원의 통합과 분리를 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 사회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정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연구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올 1월에는 나주시의회가 재분리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돌아보면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이 출범했고, 1995년에는 광주시가 출연하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7년에는 통합 운영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분리되었지만 2015년에 다시 공동 발전 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통합된 이력이 있다. 이와 같이 통합과 분리가 반복되어 오다 현재에 이르러 다시금 제기된 분리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본질은 간단하며 명확하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강한 지방을 만드는 것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해법'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의 역할이 확대되고 그 규모와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근거 없이 표면적 이점에 따라 또다시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기존의 분리 운영이 가져온 한계점이 똑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존의 구조 변경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는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연구원이라는 싱크탱크가 더욱 효율성 있는 구조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구조 개편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통합 또는 분리 논의의 본질이 바로 지역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전남연구원의 존재 이유는 상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발전 전략의 수립과 연구에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이러한 싱크탱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군데가 운영되어 얻는 이점을 생각할 때 이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서울시 다음으로 지역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기연구원뿐만 아니라 100만 인구 이상

의 도시인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에서도 자체적인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도 장기적 관점에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연구가 실시되고 연구원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상생 과제를 내놓아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각기 전담 연구원을 두고 상생 과제를 상시적으로 다루는 팀의 공동 운영을 통해 한계점을 극복하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함이 언당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정책 사업인 라이즈(RISE: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도 올해 시범 지역 선정에서부터 2025년 이후 전 지역으로 확대되기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각 시도도 명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서를 직접 제출받는다. 강한 지방을 만들기 위한 지역 주도 정책 모델 DNA의 기본 단위가 시·도로 구분되어 있는 이상 지역을 초월하는 상생 과제 연구에 앞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된 특성화 정책이 우선 요구되고 있는 것이 구조적 현실인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의 통합 또는 재분리에 대한 논의에 앞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함께 연구원 효율화를 위한 전담 연구원의 배치라는 단기적 결단을 국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2-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5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663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42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80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